

코로나 지친 국민에 희망 준 불굴의 산악인 꼭 돌아오길...

1991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 등반 중 동상 손가락 10개 잃어
지구촌 희망의 영웅 ... 장애인 최초 7대륙 최고봉 올라

히말라야서 실종 김홍빈 대장

김홍빈 대장은 브로드피크 도전에서 크레바스(crevasse·빙하 사이의 깊은 폭)라는 걸림돌을 만나 등반 내내 험난한 여정을 거듭했다. 크레바스는 김 대장의 등정길에서도 발목을 잡았다. 파키스탄 현지 베이스캠프와 연락하고 있는 2021브로드피크 원정대 관계자는 지난 18일 광주 일보와 통화에서 “김 대장이 등정 과정 중 예상치 못했던 크레바스(crevasse·빙하 사이의 깊은 폭)를 만나 애초 계획했던 등정 시간보다 6시간여 가량 늦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원정대가 계획했던 캠프4 위치는 7500m였다. 그곳에 거대 크레바스가 있어 위치를 7200m로 변경했다”며 “고산에서는 난 땀·마라도 앞으로 캠프를 설치해야 하는데 조건이 허락치 않아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장은 크레바스를 극복하고 등정에 성공했으나 하산길에 크레바스에 빠져 실종됐다. 김홍빈 대장이 브로드피크 정상에 올라 ‘장애인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 기록을 수립한 뒤 불과 1시간만에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산악계가 충격에 빠졌다.

광주시산악연맹은 실종소식을 듣고 수색과 구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산악연맹 관계자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김홍빈 대장이 부디 난관을 극복하고 돌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대장은 히말라야 도전 16년 여정에서 술한 고비를 넘겼다. 김 대장은 1983년 송원대학 산악부에서 산과 인연을 맺었다. 산악인으로서 한창 이름을 떨칠 즈음인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매킨리(6194m)를 등반하다 손가락 10개를 모두 잃는 시련을 겪었다. 사고 이후에도 김 대장은 좌절하지 않았다. 1997년 엘브루즈(5642m·유럽)과 킬리만자로(5895m·아프리카)를 시작으로 7대륙 최고봉 등정에 도전했다. 1998년에는 사고로 기억됐던 매킨리(6194m·북미)를 오르며 의지를 다잡은 김 대장은 같은 해 아콩카과(6959m·남미)의 정상에, 2007년에는 코지여스코(2228m·오세아니아), 에베레스트(8848m·아시아)에 올라섰다. 그의 도전의지는 마침내 2009년 남극의 최고봉인 빈슨매시프(4897m)에까지 다다르며 도전 12



2021 김홍빈 브로드피크 원정대가 14일 파키스탄 콩고르디아 베이스캠프에서 등정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브로드피크 원정대 제공>

년만에 장애인 최초 7대륙 최고봉 완등자로 이름을 올렸다. 열 손가락이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의 대기록이다. 김 대장은 2006년 파키스탄 가셔브롬 II봉(8035m) 등정을 시작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목표를 두었다. 티벳의 시사팡마(8027m·2006년), 네팔 에베레

스트(8850m·2007년), 마칼루(8463m·2008년), 다울라기리(8167m·2009년), 티벳 초오유(8201m·2011년), 파키스탄 K2(8611m·2012년)를 잇따라 오르며 ‘손가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굳건한 의지를 세상에 알렸다. 이후 김 대장은 2013년 네팔 칸첸중가(8586m), 2014년 네팔 마나슬루(8163m)와 로체(8516m·2017년), 파키스탄 낭가파르BAT(8125m·2017

년), 안나푸르나(8091m·2018년), 가셔브롬 I(2019년)의 정상을 차례로 오르며 완등 기록을 꾸준히 쌓아나갔다. 지난 해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19감염증의 확산으로 힘겹게 꾸렸던 브로드피크 원정이 좌절됐었지만 다시 1년을 꼼꼼히 준비해 등정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확진 외부강사 직업체험 수업...광주 3개 초·중학교 8명 확진

음성판정에 강의활동, 뒤늦게 증상 나타나...4개교 2650명 검사

광주지역 학교에서 외부 강사로부터 수업을 들은 학생 다수가 코로나19에 감염돼 3000명에 가까운 교사와 학생 등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다. 그나마 다 행인 점은 상당수 학교들이 여름방학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하지만 방역전문가들은 학교 밖 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18일부터 이틀간 광주 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8명, 교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산구 A중학교 5명, B중학교 2명, C초등학교 1명, 북구 D중학교 1명 등이다.

A·B 중학교에서는 확진된 강사가 직업 체험 관련 수업을 했으며, C초등학교 학생도 청소년 시설에서 같은 강사로부터 강의를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D중학교 학생을 제외한 8명은 해당 강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이 강사는 지난 10일 사전 진단검사서 음성판정을 받은 뒤 12일까지 강의 활동을 했으며, 이후 증상이 나타나 다시 검사를 받아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방역 당국은 감염원과 접촉 후 잠복기에 최초 검사가 이뤄져 음성이 나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은 학교별로 100여명에서 1400여명까지 4개교, 교사와 학생 등 2650명을 검사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방학 전 이뤄지는 직업 체험 학습을 중단하기로 했다. 광주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모두 12명(누적 167명)이 신규로 확진되면서 일주일째 두 자릿수 발생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마포구 음성점·경기 영어학원 관련 8명, 기존 확진자 관련 1명,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3명이다. 당국은 마포구 음성점·경기 영어학원 관련 확산이 두드러짐에 따라 델타 변이 여부를 확인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농식품부, 농업시설 코로나 방역 강화

물류센터·도매시장·공판장 등 5313개소 지도·점검 강화

전남도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박영범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관련 다중 집합시설인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를 시행되고, 전남지역도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코

나19 확진자가 지방까지 확산할 우려가 있어 농업 시설을 통한 감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물류센터, 도매시장, 공판장 등 도내 5313개소의 농업 분야 다중이용 시설이 코로나19 방역 단계 시설별 기준에 맞춰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친환경농

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건립됐다. 학교급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구입사업 등으로 연 3000여의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가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다. 박 차관은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할 중요한 시설로, 농산물이 한곳에 모여 분배되는 물류센터가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립미술관, 예향 남도 품격 높인다

유홍준 교수 등 소장가치 높은 작품 기증 잇따라

개관 4개월째를 맞은 전남도립미술관에 고 이건희 회장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유홍준 명저에 석좌교수 등 저명인사의 소장 가치 높은 작품 기증이 잇따라 예향 남도의 미술관으로서 품격을 높이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19일 “유홍준 교수, 김정현 민중미술가, 박형선 광주 해동건설 대표가 최근 작품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증 작품은 유홍준 4점, 김정현 1점, 박형선 4점이다. 앞서 도립미술관은 개관 전 송황선 가람하랑 대표의 13점의 작품 기증을 시작으로 개관 한 달 만인 지난 4월 이건희 회장의 개인소장 미술품 21점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았다. 이번엔 작품을 기증한 유홍준 교수는 전남 명예도민이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에서 ‘남도 답사 일번지’로 강진을 가장 먼저 다룬 정

도로 전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지난 2018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유홍준이 바라보는 전라남도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는 등 남도의 매력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다. 민중미술의 대표적 화가인 김정현 작가는 1980년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작품에 가감 없이 표현하며 민중미술의 역사를 이끈 주인공이다. 1995년 제1회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한 ‘정지·종교·경제’는 저항과 희생정신으로 가득했던 광주의 오월을 은유적이고 긴장감 넘치게 표현해 특별상을 받았다. 박형선 대표도 전남과 인연이 깊다. 집안 자체가 ‘운동권 명문가’로 불릴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다. 박 대표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주역으로 전남대에서 유신반대 시위를 감행, 10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윤현석 기자 chadol@

임야,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금매물과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나주노안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공고

1. 분양대상 토지 및 분양가격

용도	필지 수	면적 (㎡)	공급예정가격	입찰보증금	건폐율	용적률	층수	공급 방법
근린생활시설용지	9	361	242,542,500	공급예정가격의 5% 이상	50%	100%	3층	경쟁 입찰
		422	284,696,500					

* 사업대상지 주소 :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355번지 일원

2. 분양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분양공고	’21.7.20(화) ~ 8.5(목)	신문(7.20) 및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7.20~8.5)
입찰신청	’21.8.2(월) 09:00 ~ 8.5(목) 13:00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land.kwater.or.kr) (회원가입 후 입찰신청 가능)
입찰보증금 납부	’21.8.2(월) 9:00 ~ 8.5(목) 14:00 * 입찰신청 시 입금계좌 부여	
입찰서 제출	’21.8.2(월) 9:00 ~ 8.5(목) 15:00 * 입찰보증금 납부완료 후부터 입찰서 제출 가능	
개찰	’21.8.5(목) 16:00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land.kwater.or.kr)
당첨자 발표	’21.8.5(목) 18:00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 (http://land.kwater.or.kr)
계약체결	’21.8.9(월) ~ 8.13(금) (평일 10:00 ~ 17:00)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광주광역시 남구 송촌보길 90)

3. 분양 신청자격

가. 실수요자(분양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나. K-water 임직원 및 임직원의 배우자·부모·자녀는 분양자격 제한

4. 대금납부방법 : 신청자가 단기납부 또는 분할납부 중 자유롭게 선택가능

구분	계약금(10%)	중도금 및 잔금(90%)	비고
단기납부	분양가	3개월 이내 (80%) 6개월 이내 (10%)	할부이자 미부리
분할납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년 6개월내 3회 균등납부	할부이자 부리

※ 세부사항은 K-water 온라인청약시스템(http://land.kwater.or.kr) 분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안내	K-water 영산강보관리단 운영부 경영과 ☎(062) 600-2117 광주광역시 남구 송촌보길 90
------	---

2021. 7. 20.

K-water 영산강보관리단장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